

문학원론

# 新수능 국어영역 소설론 I st

성명

수험 번호



## 수능 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 소개

수업 문의/편입 안내/신규 수강생 안내 : 연구실 010-8388-5403

인호 배T  
InnovaTe  
Before Anyone Else KSAT Teacher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국어과 정교사 2급 자격)  
강남 오르비 학원, 대치명인 학원  
수만휘/오르비 칼럼 멘토  
2020 6평 전후 대치/강남 수강생 수 1000% 향상  
2020 6평 이후 개강반 100% 마감(6.7.8.9연속)  
2020 수강생 동생 수강률 98%

- 수험생 시절 상위 0.01%~0.3%<sup>1)</sup>
- 문이과 서울대/국립대 주최 경시대회입상(지구과학경시/지리올림피아드)<sup>2)</sup>
- 2005 군 전역 후 INOS 창업. 소셜커머스<sup>3)</sup>
- 2008 이노에듀 창업<sup>4)</sup>
- 2009 공부법 강의 1위<sup>5)</sup>
- 2010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 2010 kt에듀 전과목 강의 1위<sup>6)</sup>
- 2011 비타에듀 언어영역 강의 1위<sup>7)</sup>
- 2011 kt그룹 계열사 최연소 임원<sup>8)</sup>
- 2011~2013 전국 최대 독학 재수학원 원장<sup>9)</sup>
- 2011~2013 전국 최다 지점 소수정예재수학원 원장<sup>10)</sup>
- 2014 스카이에듀 모회사 ST&컴퍼니 고문 제의
- 2014~2018 대치/강남 입시 코디<sup>11)</sup>
- 2017~2018 경상남도 여민동락 교육 사업자 선정<sup>12)</sup>
- 2018 강사 발굴 교육기관 국어과 전임 교수<sup>13)</sup>
- V사 S사 M사 인강 강사 영입 제의<sup>14)</sup>
- 동아일보 등 다수 신문사 학습섹션 칼럼리스트 요청<sup>15)</sup>
- 삼성 러닝 허브 강연 요청 및 다수의 TV 출연 요청

- \*공부법 강연 : 용인시청, 울산 북구청, 안산시청, 전라남도 교육청 등
- \*언론보도 :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 등
-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 \*SBS 이성미의 라디오 쇼 출연
- \*SBS 김소원의 라디오 전망대 출연
- \*Mnet 김수로의 명문대 특별반 엠블랙 멘토 출연
- \*SBS 스타킹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 \*삼성 스마트 러닝 허브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 \*KBS 아침 마당 섭외 요청
- \*훈장마을 성공강사 강연회
-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1) \*현역~재수 시절. <https://vatnom.blog.me/221566245704> (링크 참조)  
 2)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는 서울대/국립대의 특정 학과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경시대회가 단 1회 있었음  
 3) \*스타일난다, 임블리등과 비슷한 시기 창업. 비슷한 성장속도. 위메프, 쿠팡,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초창기 BM  
 4) \*에듀테크 기업  
 5) \*공신 온라인 나눔자수 1위. 게시판 점유율 70%  
 6) \*kt에듀 입성 1년 기준. 전체 수강생 수 80% 매출 70% 점유  
 7) \*kt비타에듀 국어 강사 입성 1개월 뒤 수강생 수, 매출 기준  
 8) \*2011~2013년 kt에듀 컨텐츠사업부 이사. kt에듀에 이노에듀 M&A  
 9) \*kt에듀 학습센터. 6개월 간 전국 25개 지점 개원.  
 10) \*대치/강남/서초/사당/신촌/목동/노원 이노에듀.  
 11) \*성적 급등 사례, SKY 및 의치한 합격자 다수,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전국 차석 다수 배출  
 \*대기업 CEO 자녀, 고위공무원 자녀, 인강 1타 강사 자녀 등  
 12) \*온라인 이노에듀.  
 13) \*스카이에듀 모회사 커넥츠, 스카이에듀와 삼자루 선생님이 개설한 에플사브로 국어과 교수  
 14) \*현 메이저 인강 4사 중 3사(인수 합병 포함) 영입 제의  
 15) \*동아일보, 내일신문, 학원 전문 신문 앤서, 조선에듀, 국민일보 등

앞서, 시문, 고전시가론을 학습한 전제를 바탕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금은 수준이 있는 내용이 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우리는 수능 소설 문제 하면, 그냥 별 생각없이 읽거나, 적당히 인물 잡으면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세부 상세 내용을 분석적으로 보며, 특히 개념어, 전개방식 파악을 목적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출제자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방법일까요?

무엇보다

현행 수능에 최적화된 접근법일까요?

평가원 출제교수님들께서 ‘극혐’하는 문학 사조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평 문학사조이고, 이것은 후에 구조주의로 이어지는데, 이 당시에 미국등으로 유학을 가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80~90s 우리나라 교육 전반, 특히,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비평>

1930~50s

<구조주의>

1950~70s

문제는, 신비평, 구조주의에 의한 문학 분석은,

철저하게 작품에 ‘만’ 근거하여,

외부 요소를 ‘배제’한 해석을 합니다.

즉, ‘내재론’ 중심의 ‘지문에 근거한 해석’을 원합니다.

우리가 수능에 대해 전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접근법.

바로...

“

지문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다 있다.

문학 작품, 있는 그대로 읽어라.

”

등의 해석법이죠.

이는, 1994~2013학년도, 초기 수능, 즉, 언어영역이던 시절, “수능은 지식이나 암기력 측정시험이 아니라, 능력 측정시험이다. 그래서 배경지식도 필요 없고,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 따라서,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라.” 등의, 지금의 출제 원칙에 어긋난 내용이 일부 스타강사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며, 이제는 통념이 되어, 그에 대한 명백한, 평가원, 국어교육학계의 논문, 공문서등을 근거로 잘못됨을 주장 해도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거 ‘언어영역’은 그런 경향 분명히 있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답 고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행 ‘국어영역’ 수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전 언어영역 접근법을 배워 고수하는 수험생은 25분에 15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문학 파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정답률 역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평가원의 수능에 대한 생각을 바라보겠습니다.

“

〈소설〉

...소설은 **현실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소설 교육〉

...삶과 현실에 대한 심화된 체험...

...문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여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까지 나가야 한다...

...작품 속 삶이 자신의 생체험으로 전환되어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

〈최병우〉 『국어교육학 사전 428~4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수능 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다음 문제를 평소대로 풀어봅시다.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 수 : 약 잠수서야죠.....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밀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건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 건 흠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 비켰!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 닥쳤!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끼지는 옥수.

웁손이 :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웁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러 올릴 때, 피땀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놓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체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놓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혼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

이기던 똥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치: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잔: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 '아냐! 이걸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흙덩이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염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 ㉡:'똥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애'가 언제나처럼 '똥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평소 기출 분석하던 대로, 21번, 23번, 24번을 분석해봅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Q1. 21번. 만약 4번이 틀렸다면, 이유가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100% 확신하여 그 근거를 주장하실 수 있나요?

Q2. 23번. 4번 선지를 골랐다면, 왜 1번 선지는 틀려야 하나요? 1번 선지가 틀렸다는 100%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실 수 있나요?

Q3. 24번. 5번이 아닌 선지를 정답으로 골랐다면, 5번 선지는 정말로 맞는 선지인가요? 100% 확실하?

다시 위의 질문 세 가지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 지문을 분석해봅시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  
 가 훌쩍어 깨워서였다. 훌쩍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한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가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  
 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  
 나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  
 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  
 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  
 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Q2. 23번, 4번 선지를 골랐다면, 왜 1번 선지는 틀려야 하  
 나요? 1번 선지가 틀렸다는 100%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지문  
 에서 찾으실 수 있나요?

보통, 우리는 개념을 적용해 문학 작품을 분석합니다.

우선 위의 세모 표현들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대사, 행동, 장면, 장면이 연쇄되고 있고,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  
 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또한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즉, 아이와 아버지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  
 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정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선지는요?

직접 제시 VS 간접 제시

직접 서술 VS 간접 서술

직접 인용 VS 간접 인용

이 차이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요?

시간안에, 정확히 푸는데 있어서...

개념을 비벼서, 근거 찾아 푸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요?

아니, 시간이 충분하다 한들,

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개념을 적용해 분석해 보는 접근법이 과연 가능한 한가요?

정답 2개 아닌가요?

도. 대. 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전제,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전제,

모든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문학은 개념어 분석 문제이다

따위의 접근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위의 접근 틀에 따라 분석해보겠습니다.

(가)

#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성격: 환자 성격: 영감 보살핌

인물에 파란색 등그라미

평가원이 집중하는 정보에 밑줄을 칩니다.

인물 = 사람 이름
성격 = 인물의 전형을 결정하는 요소(신분, 직업, 나이 등등)

'성격'은 원래 CHARACTER를 번역한 말로, '인물'과 같은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능 국어 기출 문제 접근에서는 위와 같이 정보 처리합니다.

옥수 : 약 잡수셔야죠.....

송영감 : (눈을 뜨며) 읊!

옥수 일어나려는 송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영감.

송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영감의 내면심리

송영감 : 읊!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소재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송영감 (걱정스럽게) = 내면심리

건강이 안 좋음에도, 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인 옥수는 송영감을 간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영감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소재인 '독'에 주목을 시킵니다.

내면심리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걸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걸 흠덩이다!

송영감의 내면심리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갈등? 나나 만류

송영감 : 비켜! (뿌리친다)

주변 인물들이 걱정스럽게 볼 정도로, 독은 엉망진창입니다. 송영감은 절망하고, 비통합니다.

독을 깨리는 그를 웁손이가 말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뒷 내용을 보면, 웁손이는 송영감을 공감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갈등이 아니라, 송영감의 노력과 고생을 알기에, 송영감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만류하려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합니다.

나가떨어지는 똥손이

**석 현**: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 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쳐! 이젠 **부정**을 탓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똥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같등 원인 : 기준 차이

하지만 석현이와의 같등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 차이 때문에 생긴 같등이고, 뒤의 내용을 보면, 석현이와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암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뚜왕! 뚜왕!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박살 나는 똥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끼지는 옥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가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그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출제자 관점에서는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입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똥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똥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맙'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같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똥'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별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는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즉,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원의 단호한 의지가 보입니다.

“  
지문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다 있다?  
문학 작품, 있는 그대로 읽어라?  
개념어 학습이 중요하다?  
개념어 정리 후 그것을 작품에 적용 해석하라?  
선지 ox 판단?  
”

저도 불과 3년전 까지의 수능에서는 위와 같은 접근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  
신비평에 의한 작품 분석 접근법을 배제한다  
”

즉, 개념어 중심의 문제 접근을 막겠다는 의지.

개념어 중심으로 접근할 때의 함정이 보입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똥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똥'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별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보이시나요? 평가원에게는 개념어 : 시각적 묘사

가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즉, 정보처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임을 파악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이죠.

이렇게, 우리가 평가원의 규격에 맞게 정보처리 하지 않으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웁손이 :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  
를 바라본다.

웁손이와의 갈등은, 사실, 송영감에 대한 걱정과 공감임을

석현이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음을

그리고 으잉? 옥수는 갑자기?? 왜???

사실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나중에 썰 풀게요...

㉠ 똥왕! 똥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  
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똥왕! 똥왕! 똥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네 작품은 이렇게 끝났고.

나중에 썰 풀게요...

첫부분 인사.배 잡기!

(나)

송영감의 능력한계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  
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  
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  
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  
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  
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내적  
갈등  
어려운  
상황  
장면

숨씨에 틈이 생겼다 = 능력의 한계라고 해석 가능하고

환영 = 내적 갈등, 심적 괴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웅  
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  
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  
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다시 일어나 보니, 아이가 힘들어 보이고, 그 아이아 내면 심  
리를 송 영감 입장에서 추측하는데...

이상하네요?

아이가 저렇게 있으면 정상적인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하죠?

아이를 챙겨야죠.

그런데 뭐하나요?? 또 독만 짓고 있네요?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  
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내면심리  
어려운  
상황

송영감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려 깨워져있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짓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터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 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문제의 부분입니다. 추후 문제 풀이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띄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흠이기던 뽕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찻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의지. 열정  
예술가로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치: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전: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끝까지 읽어보니 어떤가요?

송영감은 늙고, 노쇠하고, 심지어 실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아이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독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걱정해 챙겨주는 아이한테 화를 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을 다시 짓습니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독을 짓습니다. 즉, 좌절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혼, 극복의지라고 주제를 읽을 수 있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그렇다면 아래의 정답은?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 아이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싶어 작가가 쓴 부분인가요?

4 자기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아이한테 화를 낼 정도로 멘탈이 터져버릴 때까지 예술 혼을 불태우는 송영감의 내면심리를 묘사하기 위함인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선지가 됩니다.

즉, 우리는 1,2,3,4선지 하나 하나 보며, 나름의 판단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우리가 평가원의 정보 처리 규격에 따라 정보 처리를 했다면,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거의 없습시다.

하지만 그 규격에 맞지 않게 처리 했으니,

당연히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 자꾸 지문으로 가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출제 의도, 출제자가 처리한 규격에 맞지 않는 정보 처리를 했고,

결국 선지 판단에 개념을 적용하고,

논리를 따지다 틀린 선지를 고르는 불상사,

답을 고르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이 있음에 알려 준다.

아까 봤다시피, 옥수는 송영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송 영감을 먼저 보살피죠. 성격

- ② ㉣: '뽕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뽕손이는 공감(내면심리)했습니다!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소셜'론

③ ㉔: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㉓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정확한 갈등의 원인 보이네요.

④ ㉔: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판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역시 내면심리, 내적갈등

⑤ ㉔: '애'가 언제나처럼 '웁손'이 가 버티기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역시 내면심리

위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정보처리를 정확히 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㉔, ㉕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작품 줄거리와 주로 (가)에서 보여진 외적갈등, (나)에서 보여진 내적갈등, 그리고 (가)에서 보여진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서 보여진 영감의 성격을 정리해 생각하면, 주제는...

절망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가적 집념으로 극복하려는 송영감의 의지

위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정보처리를 정확히 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는 ㉔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㉕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주제 잡았으면 무리 없습니다.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㉔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㉕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소재와 내면심리를 잡았으면 역시 좋음.

③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는 ㉔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㉕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잡으면 됩니다.

④ '폴썩 주저앉고 만다'는 ㉔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㉕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가) 내면심리 : 절망

(나) 첫부분 : 능력 한계

있는 것 같네요!

⑤ ㉔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염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㉕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

??

???

정답이 없네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제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로

사후적으로 정답을 알고 끼워 맞추기로 답 골라놓고,

그게 맞다고 착각하면,

수능날 참고육 당합니다...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우연하게 답만 맞으면 뭐할거예요.

왜 정답이 4번 선지가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의 평소 풀이, 시중 해설지, 접근으로는 절대 100% 완벽한 답변 못 합니다.

하지만, 평가원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주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절망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가적 집념으로 극복하려는 송영감의 의지

④ '폴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솥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즉, 위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감은 극복의지를 보였다!'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즉, 주제에 위배되죠?  
 좌절까지만, 능력의 한계 까지만 이야기 하면...  
 출제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절반,  
 혹은 오히려 반대 의미가 전달됩니다.  
 좌절과 능력의 한계는  
 극복의지를 빛나게 하려고 출제자가 세팅한 부분이지,  
 작품의 주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것이 바로 출제자가 생각한 답.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풀던대로,  
 개념 따지고,  
 내용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단어, 내용, 장면, 하나 하나, 개념과 연결지어 숨은 그림찾기,  
 퍼즐 맞추기로 선지 끼워맞춰서 접근...

더 이상 안 됩니다.

평가원이 원하는 정보처리 규격  
 반복하고  
 이해하고  
 암기해  
 적용합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여담으로...

(가)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 옥수 역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앵손이와의 갈등은, 사실, 송영감에 대한 걱정과 공감임을

석현이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음을

그리고 으잉? 옥수는 갑자기?? 왜???

사실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펄럭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헉... 설마 바람 나서 나갔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하... 뭐지?

19금????

추후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썸을 풀어드릴게요.

구글 검색해봐도...



불길속에 사랑과 집념을 ... 구어내는 옥정의 충격예술???

옥정???

[명사] 1. 환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욕심. 2.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



할말하않... 유튜브에서 봐요!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성격: 환자 성격: 영감 보살핌
옥수: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의 내면심리
송 영감: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수: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소재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굵이 간 독들.
내면심리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내! 이견독이 아내!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견 흠덩이다!
송 영감의 내면심리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아니 여보게! 무슨 것인가! 만류
송 영감: 비켰!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갈등 원인: 기준 차이
석현: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쳐! 이견 부정을 탕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손이: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쾅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첫부분 인사배 잡기! 능력한계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누제마치로 두드러 올릴 때, 피땀 눈앞에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흠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혼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웁손이와 석현이 애가, 앵두나못짓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밤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밤인지 모를 것을 꿴었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내적 갈등
어려운 상황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내면심리 어려운 상황
송영감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갈등
갈등
공감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이기던 뽕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의지, 열정**  
**예술가로**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차: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전: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 '아냐! 이견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솟대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주제 : 건강악화. 능력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복의지**

- ㉤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옥수. 성격 내면심리**
- ㉡ ㉡:'뽕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인물**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공감**
-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갈등 원인**
-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 ㉤:'애'가 언제나처럼 '뽕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의도) : 내면심리. 내적갈등**
- ㉤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심리 묘사**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
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
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썰어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이니깐요. 머 내가 해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
마디로 딱 찢라서 말하겄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
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곤 빈손으로 우찌 하겄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
부터 치고 보른 ㉠ 쫓고 알 묵는 거 아니겄소."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먼저 않는 것도 무리는 아
니겄소. 하지마는 두고 보른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
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른
알 기니깐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랬을 양이른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
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겄
네. 날을 다가야겠다.'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후의 밤
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
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
았지만 집집에선 인적이기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
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횃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횃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흥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니? 자아! 내 왔다! 이
제 죽여 보아라! ㉢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뽐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외락외락 흔들어
댄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어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푹
멈춘다. 돌아본다. 흠뻑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 사람 영악한 것은 법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
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
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드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읍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 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 으호호호."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소셜'론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이  
가 잘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나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캅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간밤에 감수한 생각  
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  
할 놈 같으나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바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박경리, 「토지」-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 흥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희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로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여러분 다 푸셨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충분히 고민하고, 답을 하나 정한 뒤, 뒷장으로 갑니다.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 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지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왜?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깐요. 머 내기 해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 마디로 딱 찢라시 말하겄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짝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른 빈손으로 우찌 하겄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 부터 치고 보른 ㉠뽕 묵고 알 묵는 거 아니겄소."
"야아가 삼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먼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겄소. 하지마는 두고 보른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라. 풍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러요? 지내 놓고 보른 알 기니깐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그랬을 양이른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겄네. 날을 다가야겠다.'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후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이 나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알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결백 주장
윤보 성격
삼수격정
결백 주장

삼수 성격
기회주의자

습격 장면

나오길 기다릴 흥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어 보아라!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뽐으며, 거름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외락외락 흔들어난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어나간다. 펜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드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읍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 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 으호호호."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습격

갈등폭발

내면심리

성격: 서희격정

[B]

내면심리

내면심리

성격변화
입체적 인물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이  
가 잘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캅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간밤에 감수한 생각  
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  
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바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습격  
-박경리, 「토지」-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 흥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희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바로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인 '습격'을 파악해서 집중했다면 정답 선지가 입체적으로 보임!

18.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볕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로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습격장면 갈등폭발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습격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습격

대립의 원인은 습격인데... 습격은 [B] 장면이 아님!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수능 국어 소설 지문의 가장 큰 특징.  
첫 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됩니다.  
따라서, 첫 부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줄거리로 제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보니, 쉽지 않습니다.

조준구

홍씨

서희

최참판

삼수

윤보

별써 6명의 인물에

- 1. 재산 가로채고
- 2. 사람들 착취하고
- 3. 습격 준비 중에
- 4. 삼수가 찾아오는

4가지 사건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에 따라 접근한다면,

문제 난이도는 정말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께요. 머 내가 횡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겼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긴테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찢라서 말하겼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요.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른 빈손으로 우찌 하겠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문

㉠ 평 묵고 알 묵는 거 아니겠소.”

삼수가 왜 찾아왔다 했더니,  
친일파 조준구를 같이 조지겠다고 합니다.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마는 두고 보문 알 거 아니요?”

자기 평소 행실 때문에, 믿지 못할 거라 생각.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윤보의 성격이 나오는군요.

사실 삼수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삼수 인생 조지지 말라고 배려하는 모습.

참... 윤보... 너란 녀석... 착하기 그지 없구나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문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그랬을 양이른 별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삼수가 정말 윤보를 도우려고 저렇게 결백을 주장하나 싶죠?

‘밀어묵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야겠다.’

하... 아니군요.

결국 기회주의자 삼수였습니다.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알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A] 습격 장면입니다.

줄거리에도 나왔듯,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다시 이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이어지고,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화적** **눈** 불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심지어, 홍씨가 서희를 쥐잡듯 잡는 갈등의 원인으로 가지 연결됩니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나?”  
**갈등폭발**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낸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내면심리**                      **성격: 서희격정**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 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B]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내면심리**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흠뻑**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면심리**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나?”

B장면은,  
 습격으로 인해 시작된  
 홍씨의 일방적 폭행과,  
 갈등의 폭발.  
 그로 인한 서희의 내면심리 묘사, 성격, 봉순이 성격 제시

나직한 음성이다. 홍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서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고,  
 예전에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 차라리 죽어야지 했다가  
 [B]장면 부터는 성격이 바뀐다

너... 부숩버리겠어.

라는 군요.

사람이 영악한 것은,

범보다 무섭다, 그러니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나?”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읊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홍 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만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 으흐흐흐.”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계속 반복되는 대사라 정보 가치가 있는데, 문제와는 관련이 없네요. 하지만 추후 이런 접근 연습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오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캬십니까?”

**습격**  
**누명**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간발**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내뿜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특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습격**  
-박경리, 「토지」-

삼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끝까지 습격이라는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개념 적용 보다는 ‘내용’ **정보가치 높은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심**으로 문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습격 장면, [B]는 그 습격으로 화가 난 흥씨가 화풀이를 서희에게 하며, 서희와 갈등이 폭발, 서희의 내면심리와 봉순이의 성격이 제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비유적 표현 개념어에 집중 하지 말구요!

습격 장면이니 은밀해야죠!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역시, 개념 음성 상징어 찾기 말구요!

갈등 폭발 장면이었으니 당연히 행동이 격렬하겠죠!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역시 습격 장면, 당연히 관찰, 내면심리 묘사.

여러분... 수십가지의 개념 다 확인 못합니다. 기억도 없고, 그때 그때 발췌독 하는 과정에서 실수 유발됩니다!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제발... 과거형 현재형 찾다가 시간, 실수 모두 손해보지 말고!

습격이니 긴장감

갈등 폭발! 모두 확인!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응?

그런데 인물 간 대립 원인은

습격 아니었나요?

[B]는 그런 장면이 아닌디???

역시 정답!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습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그리고.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려줬다며 윤보를 헐뜯고 있다.
- ③ ㉢ : 흥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희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역시!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습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바로 정답으로 이어지네요!

놀랍죠?

소설 자체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렇게 쉽다니...

왜죠?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규격으로 정보처리 했으니, 엇갈림 없이 딱 떨어지는 접근이 됩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의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봉순이는 서희를 계속해서 보살피는 성격을 보임. 답3번!

여러분...

이제, 제가 보기부터 보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보기는 보기 문제일 뿐이에요.

보기로 접근의 관점을 주고 싶었다면, 이미 출제된 비평문 형태로 지문에 묶었겠죠.

이렇게 출제된 것은,

오히려 보기가,

작품 감상에 잘못된 관점을 심어 줄 수 있어요.

물론 문학 작품 감상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보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접근은 이런 문제들에서 터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갖게 해요.

저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처리 규격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현행 수능의 유일한 답입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다시 한 번, 숙지 합니다.

다음 지문은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오답률 3위 문제가 있는 지문인데...

일단 풀어보시고,

그 뒤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보세요. 특히 2019학년도 수능 45번 문제에 집중하세요!

연결해 풀라는 의도도 생각해보시고요!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A]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뿔뿔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관을 붙였 으되, '만고총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복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

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리저리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문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참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B]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견과 벼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몰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작자 미상, 「조옹전」-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옹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25. 큰 잔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옹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옹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옹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옹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옹이 거론되는 것은, 조옹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옹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옹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옹에게 전달하는 사임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뚝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쪽 초석(草席) 뚫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회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얼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앞일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뜬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황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쇠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B]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었디어 문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쇠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C]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D]
세상에 났삽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祿)에 무엇 싸고 삼목괘(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었디어 들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며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쇠되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E]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김인걸, 「일동장유가」-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차아: 줄기에서 벌어진 나뭇가지.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피봉: 겹봉.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2 ②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3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5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3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4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5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1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2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3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쇠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쇠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4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5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혹시 의도 아시겠나요?

6평 바로 전 수업

대전 수업에서 학생 질문이 들어왔어요.

2019학년도 수능 45번

20분을 헤멘 뒤 설명해줬고,

그 덕에 대전 학생들과 저는 2020학년도 6평 뒤에 웃을 수 있었죠.

전체 오답률 3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와 똑같은 유형과 접근법이 필요했던 문제가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20분을 버벅거리서

모든 학생들과 제 기억에 선명히 남은...

2019학년도 수능 45번

2020학년도 6평 25번

문제는...

6평 이후 대치 강남에서만 1500% 수강생이 성장했고,

제 수업을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의 마감반 수업을 병행하는데...

학생들이 말 해줘서 알게 된, 시중에 넘쳐나는 오해설...

자칭 타칭 1타 강사들의 오해설이라 더 충격적이에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2019학년도 수능 45번

그중에 <sup>S</sup>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sup>V</sup>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sup>V</sup>되되 <sup>V</sup>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취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B]

일생 처음 <sup>V</sup>보았으니 <sup>V</sup>없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sup>V</sup>퇴석인가 하나이다

여기까지 모두 주어는?

전승산. 그래서 승산이가 퇴석 선생을 높이며 대사치는거예요.

즉, 주어 서술어 정확히 파악 못하면 터지는 문제였죠.

내 웃고 써서 <sup>V</sup>되되 <sup>V</sup>높고 <sup>V</sup>병든 <sup>V</sup>둔한 글을 [C]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 <sup>V</sup>키 가이 없다

그러니 이제 퇴석 선생이 대답하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높고 병든 둔한 글 이라며...

여러분 이런 말을 남이 나한테 하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스스로 낮춘 거라 봐야죠?

<sup>S</sup>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D]

세상에 낫삼다가 <sup>V</sup>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다시 주어는 승산이가

소국의 천한선비?

역시 스스로 낮추는거죠? 남한테 그랬다가는 싸운대니까.

- ① [A]는 [B]~[D]의 **필답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나 = 퇴석선생

상대 = 승산

승산이가 퇴석선생 칭찬

[C]의 '늙고 병든 듯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이에 대해 퇴석 선생은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죠!

- ③ [B]의 '필답으로 써서 퇴석'과 [C]의 '내 웃고 써서 퇴석'을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당연.

-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B의 주어는 승산이, 그래서 승산이가 퇴석을 높임

D의 주어는 역시 승산이, 여기서는 자신을 낮춤.

서로 다르네요!

정답!

이제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갑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며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뒷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뒷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분석 합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며**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뒷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뒷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제왕이 밑에서 시끌시끌 하니 뭘 소린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니들 한 명씩 말해봐! 이거죠?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여전히 한 문장 안 끝났고, 그래서 주어는? 제왕의 대사죠?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뭔가 이상하네요?

**'지'**

1. 낮춤 표현 인데...

그럼, 제왕의 대사가 아닌가?

아니죠!

한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여전히 제왕의 대사고!

마지막!

**'아니하리로다. 찬란하리로다.'**

반말로 끝나잖아요!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왈,**

또!

보시다시피,

뒤의 대사는 완전히 반말 + 평가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참석자 서로의 평가였다면,

반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즉, 제왕의 대사이니,

반말이고...

그러면, 다시.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복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1. 자신을 낮춤 표현

2. 지시어 ex)저(자), 저(기), 저(사람) 였군요!

25. 큰 잔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제왕이 공적 평가 라고 바꿔야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 풀었는데 답 골랐다?

그럼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겁니다.

운 좋게 6평에서 맞은 거지,

수능날 저렇게 풀면?

얼마든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학은 숫자가 틀리거나,

풀이과정이 다르면, 사고를 객관화 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해 교  
정할 기회가 있지만,

국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잘 잡으세요!

그러면 이어서 지문 분석 후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봅시다.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쥐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가] 침정한 산중에 수목이 뻗뻗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공경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 으되, '만고충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지위높음
공경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니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뒷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었다.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홍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뒷자리에 앉은 세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반말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북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다.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강충강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평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리저리하였거늘, 행여 그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문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각몽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어귀를 일삼았다.
[가]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배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려는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내면심리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입몽

성격

1. 낮춤
2. 지시 표현

내면심리

길한 예언

각몽

불길한 장면 묘사

들어갔다.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내면심리**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다음받는 장면**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들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작자 미상, 「조웅전」-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중심 사건**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웅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중심 사건 장면**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입몽**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불길한**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입몽** **분가**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입몽**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25. 큰 잔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조웅**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송나라**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심리**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분위기**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웅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웅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웅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상식**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웅이 거론되는 것은, 조웅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웅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웅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웅에게 전달하는 사임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여기까지 잘 따라 온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입니다.

- 1. 그냥 풀던대로 푸는게 편한데
- 2.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음
- 3. 슬슬 알 것 같음

우선, 1. 자신의 편한 방법으로 25분 이내 컷을 완벽히 하면서 정답을 완벽하게 고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독서, 문법, 화작과는 달리 문학은 '감정'처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감을 잡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애매함이라도 보인다면 다시 정확히 수업 활용을 하기바라며, 지금까지 배웠던 지문 구조 전반들 다시 잡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수능 국어의 본질〉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 주제는 역시 서사, 줄거리입니다.
- 인물들이 어떤 사건 갈등을 겪으며, 그것이 어떤 이야기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것을 잡기 위해 '인물', '사건, 갈등, 장면, 분위기'를 잡아야죠.

-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 인물간의 갈등이나, 사건, 장면, 때로는 분위기를 잡습니다.
- 갈등은 말 그대로 충돌.
- 크게
-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내적 갈등은 방향, 부정적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적 갈등은 인물 VS 인물을 비롯
- 인물 VS 집단 사회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장면은 '밥을 먹는 장면' '싸우는 장면'처럼 그림으로 묘사하듯 표현할 수 있는 한순간~조금 긴 순간을 말하고 (그 기준은 많이 다르다 보면 문학적 관습에 따라 잡힙니다)

사건은 장면보다는 좀 더 긴 개념으로, 갈등 역시 사건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좀 더 '주관적인 느낌'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갈등, 장면등에서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단서' '느낌, 감정'등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말합니다.

-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 사람을 인물이라 볼 수 있으나 사실 정확하게는 character의 번역으로 인물과 성격은 같은말입니다.



즉,

노인 = 좀 더 보수적

청년 = 좀 더 진보적

아이 = 순수함

어른 = 능숙함

등과 같이 그 사람의 나이, 신분, 직업, 외양 등등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의 총 집합 = 인물 or 성격

이라고 합니다.

내면심리는

그 사람의 속 마음입니다.

내면심리를 바탕으로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예를들어 범죄도시를 보면

인물은 마동석, 장첸

이라기 보다는

주동인물 : 마동석, 경찰, 강함, 근육질, 싸움 잘 함, 일 잘 함, 험악함.

이런것들이 인물(=성격=성격요소)입니다.

반동인물 : 장첸, 조폭, 조선족, 잔혹함

당연히 조폭과 경찰이라는 성격(인물)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충돌/갈등 없이 사건의 나열로만 진행되는 경우, 장면으로만 연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인물이 만들어내는

싸움, 폭력, 수사 등등

장면, 사건, 갈등들이 이어지며

조선족 조폭을 일망타진하는 형사이야기라는

주제 서사 줄거리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 속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이 내면심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화와는 달리 소설은 서술의 방식이 쓰이고, 희곡 시나리오도 (지문)을 바탕으로 내면심리를 묘사합니다.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핵심이 되는 1,2,3을 읽는데

대림동이라는 중국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적/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읽는 것도 도움이 되며,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특이했던 소재, 배경, 서술 방식 역시, 출제자들 입장에서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출제의 대상이 됩니다.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2000자 내외로 출제되는 수능 지문 특성상, 서사 구조가 끊기면서 스토리 텔링이 되기 어려워야 하지만, 수능 문제 설계상 문제 없도록 출제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줄거리 제시, 또는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의 3요소를 집약적으로 세팅합니다.

따라서 그 세팅을 놓치면서 읽게 되면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일부 고전작품 중에는 등장인물이 18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계월전)

이럴 때는 주인공+주인공 관련 서사에만 집중하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평가원이 목표한

서사 교육의 목표를 어느정도는 이해하게 된 흐름이라, 좀 더 해석의 편의를 주기 위해

서사 지문 구조를 잡습니다.

다만 이 구조정리는 개인적으로는 지양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니, 필요하면 어려운 작품 정리에 활용바랍니다.

핵심은

인물, 사건/갈등, 줄거리  
+ 특이한 소재, 배경, 서술방식  
잡아가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 그대로 씁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2페이지~15페이지 다시 읽고 옵니다.  
 특징는 늬은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희곡/시나리오 독 짓는 늬은이**

#124

인물	성격	내면심리	
송영감	환자,노인	독 걱정	
옥수	남편 보살핌	남편 걱정	

중요 소재 : 독 - 백자기 - 증응,룡응,반응으로 이어지며 #124와 #125를 연결, 작품 전반 핵심 소재로 작용

송영감과 옥수, 웅손이와의 갈등은 없음  
 옥수는 송영감의 건강을 걱정하고 (독이 아닌 건강을 먼저 챙김)

웅손이는 송영감의 멘탈을 걱정함 ('자네 환장했구먼...' 송영감에 공감)

#124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 갈등
송영감	환자,노인,	절망, 비통, 오열	독 짓기 실패 ⇒ 멘탈 터짐 ⇒ 독 파괴
웅손이	송영감 절친	송영감 만류 걱정, 공감	독 짓기 실패 ⇒ 송영감 멘탈 터짐 ⇒ 독 파괴 ⇒ 만류, 공감
석현	송영감 제자 옥수 전 남친	독 걱정 송영감과 갈등 분노	독 짓기 실패 ⇒ 송영감 멘탈 터짐 ⇒ 독 파괴 ⇒ 송영감 갈등 원인 : 다른기준
옥수	송영감 부인 석현 전 여친	박살나는 독에 심장 박살  석현과 갈등이 불안함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독 짓는 늬은이**

S1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숨씨에 톼 끝까지 독지음	아내와 조수 환영	내적갈등(환영) 독짓다 쓰러짐

S2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숨씨에 톼 끝까지 독지음 아이보고도 독 지음	아이 관찰, 걱정 하지만 독.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아이	순수, 어림.	엄마 기다림	남쪽 봄

S3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숨씨에 톼 끝까지 독지음 예술혼 독 지음	제 힘이 아닌 어떤 힘으로 일 어남	결국 쓰러짐

S4[A]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숨씨에 톼 끝까지 독지음 예술혼 독 지음	이 상황에 분노	자기 걱정 아이에게 화낼정도로 멘탈 터짐
아이	순수, 어림.	아빠 걱정	

S5  
 송영감은 포기 없이 계속해 독을 지음  
 건강, 실력, 모든 것에서 문제이지만, 끝까지 지음  
 => 주제 : 포기를 모르는 예술 혼

이 구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문제선지를 연결해보시면,  
 역시 평가원이 설계한 수능의 특징이 명확히  
 보이실거예요!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 '아내! 이젠 독이 아내!'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주제. 예술혼

- ㉡ '흙덩이더!'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핵심 소재. 독. 흙덩이

- ㉢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외적 갈등의 원인. 기준

- ㉣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솥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내용이 있지만, 주제가 아닙니다!

- ㉤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염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주제. 예술혼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인물의 내면 심리.

- ㉡ ㉡: '똥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인물간 갈등. 내면심리.

- ㉢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인물간 갈등. 원인

- ㉣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인물 내면심리.

- ㉤ ㉤: '애'가 언제나처럼 '똥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물 내면심리.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를 잡아야합니다. 갈등해소 있지만, 주제는 아이의 간호에 화를 낼 정도로 멘탈이 터진 송영감

- ㉡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정답!

- ㉤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뭇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내면심리. 성격 아님. 정답!

16페이지~19페이지 다시 읽고 옵니다. 토지.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토지**

**S1. 줄거리. 초반부 인 사 배 세팅**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조준구 홍씨	못 됨		서희 유산 가로 찢
삼수	못 됨		조준구 지시 마을 사람 착취
윤보	판단 불가		의병 자금 준비 습격 준비
서희	유산 빼앗김		
최참판			

**S2. 삼수의 설득과 윤보의 걱정, 만류, 삼수 불안**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삼수	기회주의	자신의 안위 걱정	윤보 설득 자신의 결백 주장
윤보	의로움	삼수 걱정	삼수 돌려보냄
조준구	친일파		삼수의 평가

**S3. [A] 습격 장면**

**S4. 종락 줄거리. 삼수가 조준구 홍씨 살려 줌**

**S5. 홍씨의 화풀이. 습격을 서희에게 누명씌움**

**S6. [B] 홍씨의 일방적 폭행, 서희의 반응과 성격변화**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홍씨	못 됨		서희 폭행
봉순이	서희 보좌		홍씨 말림 서희 자살 말림
서희	소극 -> 복수 성격 변화	수치심. 자살 생각.	홍씨에게 모독 당함

**S7. 서희가 말로 홍씨 협박**

**S8. 서희가 길상이 원망. 반복**

**S9. 조준구가 자신을 살려준 삼수에게 습격 누명을 씌움**

전체 관통하는 '습격' 사건을 바탕으로 => 16번 17번  
인물의 성격, 갈등 원인에 집중 => 17번 18번  
깔끔하게 답!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습격] 장면 ⇨ 당연히 긴장. 은밀. 관찰.

[갈등] 장면 ⇨ 당연히 격렬. 내면심리. 성격의 변화.

그런데? 갈등 원인은 습격이었으므로!

정답 5번 끝!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윤보의 계획을 숨기는게 아니라,

핑 먹고 알 먹고

조가 놔 쳐서 내가 좋고

재산으로 의병 만드니 너가 좋고

서사 줄거리 파악 정확히!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한편 되자. 결백 설득 하는데 협박?

- ③ ㉢ : 홍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역시! 주제. 갈등 원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 ④ ㉔ : 서희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영악하니까 나 건드린 나는 자됨 이라고 협박!

- ⑤ ㉕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습격은 윤보가. 화풀이 삼수.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의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보기보고 가면 난리 남

봉순이 성격. 서희 보좌.

정답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로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24페이지~31페이지 다시 읽고 옵니다. 조용전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조용전**

줄거리. 초반부 인 사 배 세팅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조용	영웅		송나라 회복 태자 구함
서번국 병사	반동인물		함곡에서 매복증

\*특이한 배경 ⇨ 연주로

S1.[A] 입몽장면. 환상성. 비현실성.  
S2.[큰잔치]장면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노인 제왕	관욕, 황금관, 옹포, 윗자리, 높이.		사람들의 이야기 물어 봄
사람들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림
제왕			공적에 대한 평가 또 한 공적 평가
사람들	사회 다함 노기 등천 성을 냄		좋은 장면

S3. 조용 걱정 장면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한사람			멸승 걱정
또사람			조용 걱정 서번적 존재 예측
송문제			지각 도사에게 조용 도와라고 부탁

\*특이한 배경 ⇨ 함곡으로

중략 줄거리 전후 조용 각몽 후 중략 후, 꿈이 불길, 걱정  
S4. [B] 서번 적 매복 장면. 불길, 불안  
S5. 노옹이 송문제의 부탁을 받고 조용 도우러 음 늦었는데 만나서 기뻐함  
S6. 노옹 말 대로 서번 적 매복. 간계 파악. 살아 남 씩음

크게 6장면. 전체 줄거리 묻는 23번  
주요장면 [A] [B] 장면 묻는 24번  
2019 수능 45번 유형. 킬러. 오답률 3. 25번  
전체 줄거리 파악 26번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제가 서번 적 간계에서 조용 도우려고 늦음.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연주에서 함곡. 특이 배경. 구조적 대칭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용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노옹의 내면심리. 정답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A]입몽 장면 VS [B]서번적 매복 장면

당연! 5번선지!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인물의 성격 파악 불가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불길. 낙관 없음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 시대 배경 확인 불가. 구체적인 시간대.

시간을 알 수 있는 소재나 사건 필요.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매복. 계절아님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25. 큰 잔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어, 서술어, 문맥 추론 명확히.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제왕이 윗 자리 있어서

안 들리니 사람들에게 공적 써서 올리라 하고

그 글을 보며 평가한 것임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웅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웅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웅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문학적 관습. 상식.

꿈 속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걱정되니 슬퍼하지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웅이 거론되는 것은, 조웅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웅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웅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웅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 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판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는지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십이다.”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송라를 쓰고 칠진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이 약이 일영주니 바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A]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B] \*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경에 원환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찌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 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숙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옥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삼경의 추풍은 삼삼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파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첩첩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니 문득 ㉠ 찰 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축나라 땅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짙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파라. 먹으니 배 부르리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에 ㉢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지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 소리 처량하여 산천 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벼를 삼아 심회를 덜며 일본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고요한데, ㉤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헤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증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껴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작자 미상, 「적성의전」-

\*협의:끼리고 미워함.

\*곤액: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사형: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단저:짧은 피리.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 두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환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 ⑤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숙객**이 어찌 오시니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성의 성격,인성**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왕자인데... 신분을 안 밝히는 겸손함**

**화상**이 알, **성격,인성**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 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일 제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성격**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알, **내면심리,반응**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알,

**성의 성격**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채판나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는지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십이라.**” **사건,복선,암시 +서사 흐름**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손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는데, **존자** 알,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알, **성의 성격,인성 ->하늘 감동**

“이 약이 일영주니 **가뻐**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A** 분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에 **묘일성신**과 **협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 **곤厄**이 있으나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반복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찌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 줄 낮은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할,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옥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상황 배경**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삼경의 추풍은 **삼삼**하여 **원객**의 **수십**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파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침침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니 **순득** **청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발**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출나라** 향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자 하더니, **순득**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짚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 먹으니 **배** 부르니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의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지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소리** **치량**하여 **산천** **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성격**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벗**을 **삼아** **심**회를 **덜**며 **일분**도 **그** **행**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호(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돋**지 **아니**하리오. **C** → **E** **주제**

**고전 중요**

**배경**

**성의 성격,인성**

**성의 성격 -> 하늘 감동**

**성격**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고요한데, **①** **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혜**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붙어** **숙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요청+ 거절

반복 청함

승낙 장면

장면 전환

보탑존자 등장

요약적 제시 정보가치 ↑ 3번 반복

요약 제시  
상황 제시  
작가 개입

성의  
성격,인성

성의 성격 ->  
하늘 감동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증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껴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작자 미상, 「적성의전」-

\*혐의:끼리고 미워함.

\*곤액: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사형: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단저:짧은 피리.

하향식 독서 모형 (배경 지식 활용)으로 보겠습니다.

장면 이해, 중심 서사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중심사건, 장면**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일러 두었다. **장면 암시**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회동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장면 암시**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장면 암시**

주제  
주제 줄거리      주제 반복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와서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줄거리**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환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배경 C,E**
- ②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사건, 장면 C,E**
- ③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C,E**
- ④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성격, 인성 > 하늘 도움 주제**
- ⑤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성격, 인성**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주제, 성의 성격**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작품의 주제, 반복, 반복되는 성격제시, 반복되는 주제의식, 중요성 확인!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적성의전**

**S1. 초반부 인 사 배 세팅**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적성의	호심지극.겸손	거절 슬픔.절박	보탑존자 보러 음 거절에 슬픔
화상	자기역할	성의 효성 파악	누군지 모르다가 <b>효성이 지극. 보탑존자 말 기억</b>

**S2. 보탑존자가 성의 환대. 일영주 줌. +[A]성의 형과의 이야기 요약 제시**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적성의	여전히 호심엄청지극		보탑존자 만나 도움받고 형과의 액운 들음
보탑존자			성의와 성의형 적감. 미래예측. <b>성의 효성. 인성에 하늘이 감동</b>

**중략 줄거리. 성의 vs 성의 형과의 이야기 요약 제시**

**S3. 성의 겨우 살아남**

**+[B] 성의가 자신 형과의 사건 요약 대사**

**S4. 성의가 살아나서 하는 행동들**

문득, 문득... 소리 - 촉나라 - 실과 - 살아남 - 피리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적성의	효성 지극 엄청 착함1 엄청 착함2	엄마 걱정 형 응서 오작 챙겨 줌	<b>성의의 성격. 인성. 하늘이 감동</b>

**S5. 각설. 호마령이 도와줌**

크게 5장면.

1 성의-화상 대화. 화상이 성의존재를 이미 듣고 알았음

2 성의-보탑존자. 미래 예측해 줌

중략줄거리

3 성의 겨우 살아남 + 성의 자신의 신세 한탄

4 성의 살아나서 피리 불

5 성의 도와주러 호마령이 올

주요 장면, 스토리 ⇨ 35번

반복제시 된 성의vs형 스토리 ⇨ 36번

성의 성격, 인성, 너무 착함 ⇨ 하늘이 도움 ⇨ 37,38번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릿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는지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십이라.”

하고,

“잠깐 머무소서.”

여기까지 S1.

등장인물은 성의, 화상.

성의는 자신이 왕자임에도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니 겸손하고,

무엇보다 부모님 살리기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니 효심도 깊습니다.

그것에 화상은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며

이미 자기가 보탑존자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난다. 합니다.

계속해 반복되는 성의 성격제시.

잘 파악바라고.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송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의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더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A] “이 약이 일영주니 바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계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뒤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

보탑존자와 성의의 미팅.

보탑존자는 이미 알고 있는데,

역시 성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

+

형과 성의의 액운에 대한 설명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향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멀다.

형과 성의의 액운에 대한 설명 중략 줄거리 또 반복!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성의의 상황과

이어지는 성의의 독백. 서술. 형과의 액운.

3번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이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B]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옥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구자가 불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아삼경의 추풍은 삼삼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파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칙칙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니 문득 ㉠청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축나라 땅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짚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 먹으니 배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에 ㉢한 대가 급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지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소리 처량하여 산천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이제 성의가 겨우 살아남아서,

문득! 축나라 땅

문득! 실과. 드디어 먹고 살아남았죠.

그런데도 오작을 챙기는 모습.

도덕책 그 자체... 끝도 없는 성의의 착함이란...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벗을 삼아 심회를 털며 일분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죽기 직전에서 살아나자 마자

오작 챙기고, 형 원망 안 하고, 부모님 걱정하고,

하늘이 감동해서 성의를 돕는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과.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소셜'론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 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 하고 수파는 고요한데,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혜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국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겨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작자 미상, 「적성의전」-

\*혐의:꺼리고 미워함.

\*곤액: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사형: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단저:짧은 피리.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 적성의전**

**S1. 초반부 인 사 배 세팅**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적성의	호심지극 겸손	거절 슬픔, 절박	보탐존자 보러 음 거절에 슬픔
화상	자기역할	성의 호성 파악	누군지 모르다가 호성이 지극. 보탐존자 말 기억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뭘 시험?**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뭘 제자?**

③ 보탐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 두었다.

**정답! 주요 장면 파악. 서사 줄거리 주제 파악문항!**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3번 반복.**

**S2. 보탐존자가 성의 환대. 일명주 줌.**  
**+ [A] 성의 형과의 이야기 요약 제시**

**중략 줄거리. 성의 vs 성의 형과의 이야기 요약 제시**  
**S3. 성의 겨우 살아남**  
**+ [B] 성의가 자신 형과의 사건 요약 대사**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 살릴려고 약 구하고 그러는 것임!**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게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천은 죽어서 가는겁니다.**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뒤편'이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반복된! 주제!**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환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주제의식 형성하는 요소?  
성익의 착한 성격!

51. 초판부 및 사 제 세명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적성의	효성지극, 겸손	가질 슬픔, 절박	보탑존자 부러움 가질에 승복
화상	자기역할	성익 효성 파악	누군지 모르다가 효성이 지극. 보탑존자 말 기억

  

52. 보탑존자가 성익을 돕고, 성익이 보탑존자를 돕는 과정의 묘사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적성의	어린애 효성, 겸손		보탑존자 만나 도움받고 행복의 마음 들음
보탑존자			성익의 성의형 적감, 미래예측, 성익 효성, 인성에 하늘이 감동

  

54. 성익이 살아서 가는 길에 겪는 일련의 고난, 환락, 소외 - 죽어감 - 불교 - 불타님 - 피리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적성의	효성 지극 엄청 착함1 엄청 착함2	엄마 걱정 형 용서 오작 챙겨 줌	성익의 성격, 인성, 하늘이 감동

- ① ㉠: 표류하던 성익이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익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 성익이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 성익이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하늘이 돕는 이유는  
성익의 재능이 아니라  
성익의 성품! 정답!

- ⑤ ㉣: 고립되어 있던 성익이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익이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익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성익의 착한 성격!

부정한 성익! 바로 정답!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익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익이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주제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주제, 반복, 구조, 평가원 설계 잡으면  
그냥 알아서 정답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제발 잘 활용하세요!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 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  
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도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 짝은 대문 앞의 멧대가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졌다. 우리  
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  
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  
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 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  
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  
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  
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뽀**  
를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가,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  
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  
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아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  
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갑복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

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  
든, 당신은? 당신은 아냐?”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  
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  
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  
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  
게 뿜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  
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  
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  
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밟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칫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  
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  
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 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 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 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 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어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잠겼다.

-이호철, 「큰 산」-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0. [눈 내린 겨울 아침]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날날이 되살리려 애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사  
인사배  
세팅

서사  
압축  
제시

내면심리

아내행동

추측

S1

S2

눈와서  
기분 좋은  
장난

내면심리

내면심리

배경

인물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밖에  
아내는 그 **고무신 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  
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어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이케는 인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 짝**은 대문 앞의 멧대가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졌다. 우리  
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  
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  
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 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회끄무레한 남자 고무신**  
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  
**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  
**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즈음으로 액땀**  
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가, 눈 왔다야,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  
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  
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  
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갹복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

장면

내면심리

내면심리

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  
든, 당신은? 당신은 아나?"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내면심리**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  
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  
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  
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  
게 뿥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  
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  
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런  
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S3**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밝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칫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  
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이마**, 저에 뭐유?" **분위기 전환**

헛간 쪽의 블록 담 **길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뭘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  
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눈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 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 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 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 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 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어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이호철, 「큰 산」-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X**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배경**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X**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X**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 **X**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초반부 첫부분 주제 줄거리 인사배 세팅**

1.장 2. 분위기 전환

40. [눈 내린 겨울 아침]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분위기 전환**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날날이 되살리려 애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애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이기적**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 **미신**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장난**

주제, 줄거리, 내면심리

작품의 주제, 흐름, 첫부분 세팅!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큰 산**

S1. 초반부 인사배 세팅, 핵심 사건 세팅  
 특이, 핵심 소재 : **고무신짝** ⇨ **미심쩍음** ⇨ **액땀** ⇨ **다른 집에 갖다 버림(이기적)**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나		추측에 의한 서술	미심쩍은 고무신짝 집 앞 쓰레기통
아내	이기적 (우리집 불길한 소재를 다른 집에 던짐)	미심 미심 미심	그것이 미심쩍어서 다른 집에 던짐

S2. 눈 와서 기분 좋음!  
 특이, 전개방식 : **분위기 전환 미심쩍음** ⇨ **눈 와서 좋음**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나		아내, 눈 기분 좋음	서로 장난 치
아내		눈 와서 기분 좋음	남편과 장난 치

S3. 고무신짝이 다시 나타남  
 특이, 핵심 소재 : **고무신짝** ⇨ **미심쩍음** ⇨ **액땀** ⇨ **다른 집에 갖다 버림(이기적)** ⇨ **고무신짝이 다시 나타남**  
 특이, 전개방식 : **분위기 전환 미심쩍음** ⇨ **눈 와서 좋음** ⇨ **고무신짝이 다시 나타남, 공포**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나	가치관 혼재 할리+전근대	공포, 가슴철렁	버린 고무신짝이 다시 보임
아내	가치관 혼재 할리+전근대	굳어짐, 음산함	버린 고무신짝이 다시 보임

크게 3장면.  
 1 고무신짝 액땀, 나는 쓰레기통, 아내는 남의 집  
 2 눈 와서 기분 좋음, 장난, 분위기 전환, 웃음  
 3 슬슬 불길, 액땀한 고무신짝이 다시 나타남, 일순간 모두 공포

첫 장면 흐름 잡는 것이 가장 중요 ⇨ 39번  
 특이, 전개방식 : **분위기 전환 미심쩍음** ⇨ **눈 와서 좋음** ⇨ **고무신짝이 다시 나타남, 공포** ⇨ **주제 의미 파악 40번**

특이, 핵심 소재 : **고무신짝** ⇨ **미심쩍음** ⇨ **액땀** ⇨ **다른 집에 갖다 버림(이기적)** ⇨ **고무신짝이 다시 나타남** ⇨ **인물들의 성격 파악, 41번**

첫 부분 인사배 세팅 보여야 합니다.

남편은 상황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등장 인물, 남편, 아내

그들의 내면심리는 미심쩍음

그래서 고무신짝을 나는 쓰레기통에

그게 미심쩍었던 아내는 남의 집에 던집니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뿔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도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멧대다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족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뿔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땀**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위와 같이 내면심리, 관통하는 소재-사건등을 잡아 갑니다.

공간은 그대로, 시간이 바뀌며 장면 전환.

분위기도 전환.

별 내용 없습니다.

눈 와서 기분 좋고, 장난치는 장면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아,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

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을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훑어 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깜박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냐?”

“물라요, 모르니까 문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뿜 뿜했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정신

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 그리고 이제 분위기 전환

#### 남편은 쓰레기통에

#### 아내는 남에 집에 던져버린 고무신짝이

#### 발이달렸나?

#### 어떻게 또 왔지?

#### 미신을 믿는 그들 때문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 보나 마나 다른 집에서 던지고 던지다 우리집에 온 것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었겠죠.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밝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춰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줄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 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문제 풀겠습니다.

39.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S1. 초반부 인 사 배 세팅. 핵심 사건 세팅**  
**특이. 핵심 소재 : 고무신 짝 ⇨ 미심쩍음 ⇨ 액뎌 ⇨ 다른 집에 갖다 버림(이기적)**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나		추측에 의한 서술	미심쩍은 고무신 짝 집 앞 쓰레기통
아내	이기적 (우리집 불길한 소재를 다른 집에 던짐)	미심 미심 미심	그것이 미심쩍어서 다른 집에 던짐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바로 보입니다!

40.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S2. 눈 와서 기분 좋음!**  
**특이. 전개방식 : 분위기 전환 미심쩍음 ⇨ 눈 와서 좋음**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나		아내. 눈 기분 좋음	서로 장난 치
아내		눈 와서 기분 좋음	남편과 장난 치

**S3. 고무신 짝이 다시 나타남**  
**특이. 핵심 소재 : 고무신 짝 ⇨ 미심쩍음 ⇨ 액뎌 ⇨ 다른 집에 갖다 버림(이기적) ⇨ 고무신 짝이 다시 나타남**  
**특이. 전개방식 : 분위기 전환 미심쩍음 ⇨ 눈 와서 좋음 ⇨ 고무신 짝이 다시 나타남. 공포**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나	가치관 혼재 합리+전근대	공포. 가슴철렁	버린 고무신 짝이 다시 보임
아내	가치관 혼재 합리+전근대	굳어짐. 음산함	버린 고무신 짝이 다시 보임

정답 바로 보입니다!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뎌'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장난치는 거지 무슨 가치관 같은거 없습니다.

정답 바로 보입니다!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삼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찌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죽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지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A]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죽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xx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죽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물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성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

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북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B]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접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무어 어찌?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네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덩기가 벌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혜 나와 버렸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덩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염상섭, 「삼대」-

\*조인광좌: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접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덩기는 '세간 값'으로 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덩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40.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갈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덩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덩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덩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덩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덩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작품의 주제, 반복, 반복되는 성격제시, 반복되는 주제의식, 중요성 확인!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삼대**

**S1. 조의관 vs 상훈 : 갈등원인 돈**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조의관	할아버지 '의관' 조선말	자기합리화	↑ 돈 잘 써라	자기 합리화 ↓	↑ 다시 지적	치부 발힘 ↓
조상훈	아버지 '개화기'					

㉠장면 : 조의관이 자기입장, 자기내면서술, 자기합리화

**중략**

아마도, 상훈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니 할 아버지는 손자에게 유산. 돈이 없는 상훈. 유산은 받을 수 있는데, 유언장에 없는 정미소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들에게 돈을 받아내려 함. 세간 값.

**S2. 상훈 vs 덕기 : 갈등원인 돈**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상훈	아버지 '개화기' 좌절, 타락	아들에 분노 여자에 잘 보이고 싶음	돈 세간값 정미수 내 놔 ↓	↑ 뻥치게 L L	죽방? ↓	↑ 동정 평가
덕기	손자 '개화이후'	아버지 동정 안타까움				

㉡장면 : 덕기가 자기내면서술, 상훈 평가, 동정

크게 2장면. 상호텍스트적. 대칭 구조!

1 조의관 vs 상훈 = 돈때문.

2 상훈 vs 덕기 = 돈때문

갈등 원인. 핵심 => 돈 => 39

상훈 성격, 내면심리 추측 => 여자 발힘, 가오 => 40번

전체 주제, 갈등 => 41

㉢대칭 플랫폼. 구조 => 42번

39.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요시 발췌독 해보면 됩니다. 주제, 갈등 원인인**

**돈에 초점을 두고 작품 감상하길 원하는 의도의**

**문항 설계. 1번 선지 바로 정답!**

- ① 상훈의 부친은 죽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려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40. 뒷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상훈의 성격, 내면심리 추측입니다.**

**할아버지-아버지와와 갈등에서 보이듯**

**상훈은 자기가 돈을 써가며, 제자를 건드리죠.**

**그럴 정도로 여자를 밝히는데**

**여기서도 그 모습이 들어납니다.**

**구차해보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돈 문제로 싸운다?**

**가오 떨어집니다.**

**아들 입을 막은거죠! 5번 선지 바로 정답!**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주제 해당하는 갈등 전반 이해를 의도한 설계**

**치부, 동정, 다 핵심키워드. 하지만, 아들탓을 하진 않습니다. 정답 3번**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서술방식, 전개방식이 특이한, 구조의 대칭인데,

아들 입을 막은거죠! 5번 선지 바로 정답!

**소설 삼대**

S1. 조의관 vs 상훈 : 갈등원인 돈

**㉠장면 : 조의관이 자기입장, 자기내면서술, 자기합리화**

중략  
아마도, 상훈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니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유산. 돈이 없는 상훈. 유산은 받을 수 있는데, 유언장에 없는 정미소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들에게 돈을 받아내려 함. 세간 값.

S2. 상훈 vs 덕기 : 갈등원인 돈

**㉡장면 : 덕기가 자기내면서술, 상훈 평가, 동정**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뿐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구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뿐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 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앞에 이뿐이 모 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나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팔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흠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A]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게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

—(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나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 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녀**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 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훑듯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박태원, 「천변풍경」-

(나)

**#68.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위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문헌거리.

**#71.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니다. 시시한 동네까지 물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꼴꼴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뽀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급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벡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푹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요?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이법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O·L(overlap):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22. (가)의 이팔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killer 시작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삶의 총체적 이해 + 내 삶의 고양

(가) 결혼식 상황 인물 내면심리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뿐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운단 말이나?...’ 내면심리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뿐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열열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 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뿐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현관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픈 개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A]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게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자가

작가 개입

작가 개입 특이한 서술방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 —(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나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내면심리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sup>㉠</sup>이, 유하게도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 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훔껏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관찰자

같은 공간+시간 변화

-박태원, 「천변풍경」-

(나)

#68.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장면 전환 공간 변화 시간 그대로

철호<sup>㉠</sup>: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상황, 성격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산비탈

철호와 대비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황홀에 문헌 거리.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소셜'론

#71.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니다. **시시한 동네**까지 물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72.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킁킁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어!

(중략)

철호와 영호  
암시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대사 매개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뽀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성격,갈등

철호 : (**머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어!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성격 제시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어

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찌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극 지극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택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킁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소재,법,규칙,윤리**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오?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에요.

대화 매개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이법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O·L(overlap):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주제**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주제**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가)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

매개

인물:관찰자

22.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서사,즐거리,장면**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독서 정보군집 필요시 발췌독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제,정보가치 높음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면심리**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장면 배경**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딤**을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성격**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상황**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성격**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인물**
-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심리**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장면**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성격**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성격 주제**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면 시간,공간,매개

< 보 기 >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결혼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영호**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엄마 내면심리

작가개입

작품의 주제, 반복, 반복되는 성격제시, 반복되는 주제의식, 중요성 확인!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천변풍경**

S1. 이쁜이 엄마 + 이쁜이 : 딸 시집장면  
시대적 배경 고려, 출가의인 시절.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엄마	전형 딸 사랑	딸 걱정 피로, 공허	딸이 결혼하는 장면 엄마의 반응 내면심리
딸	아버지 개화기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 **천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S2. 신전집 몰락. 이사 장면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서술자			서술자 개입, 평가. 특히 [A] 독자는~ 매우 특이
이발소 소년	관찰자		딱 관찰자 수준에서 신전집 관찰
마을 사람	관찰자	일부 공감 슬픔 하지만 이내 잊음.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술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통!**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두 작품은

1. 공간적 배경 / 시간적 배경에 따른 전개에서

2. 서술 방식에서 특이점이 존재

즉

1. 오발탄은 철호vs영호 성격차이를 s69~71에서 보여주며, 73~75 장면변화에서 대사로 연결 함

2. 천변풍경은 이쁜이 결혼 장면과 어머니의 반응, 내면심리 묘사와, 신전집 몰락 장면, 일부 특이한 작가 개입, 서술.

따라서, 공통 주제 묻는 21번.

22번 관찰자 역할

23번 특이한 서술자 개입

24번 전체 주제, 사건 갈등 파악

25번 특이한 전개방식, 장면의 연결

26번 특이한 전개방식의 정확한 파악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희곡/시나리오 오발탄**

S68. 철호. 배경 산비탈. 철호 두벽 두벽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어려워도 성실 묵묵		산비탈을 묵묵히

S69. 철호. 회상. 6.25. 피난민 수용소. 아내 모습.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아내에 미안함	아내의 좋았던 시절 아내의 힘든 시절 모든 것이 자신 때문
아내	유복 철호에 시집와서 가난		아내의 학창 시절 아내의 피난 시절

S70. 철호. 배경 산비탈. 시가지와 거리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인물	성격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어려워도 성실 묵묵 하지만 주류가 될 수 없음	시가지를 바라 보기만 거리감

**vs 영호와 철호의 성격 차이**

S71. 영호. 배경 산비탈 길. 운전기사가 운전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인물	성격	사건 갈등 장면
영호	어려움 남에게 자신은 편한길	운전 조차 안 함

S72. 영호가 철호의 집으로. 갈등 암시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성실 도덕	영호 부정	철호 기준 도덕으로 영호를 나무람 영호는 철호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는 거지꼴 못면함
영호	기회주의 성공만	철호 인정 자기 합리	

**역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5. 철호 집 밖 공간. 명숙이. 영호 철호 그대로 싸움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통주제.

문제는?

(가) : 갈등 없음. 어머니의 내면심리 위주 묘사

(나) : 형제간 갈등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가) : 갈등 없음

(나) : 형제간 갈등만 가능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웃음 유발 없음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사건 해결 없음

갈등양상만. 회상으로 성격제시만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갈등을 보여주나 그것은

(나) : 형제간 갈등만 가능

다각적이지 않음.

cf 다각적 : 다양한 관점, 예를들면 여러 인물이 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 서술. 교장은 친일파 편, 마을 사람 재종숙씨는 독립운동가 편(2007-9평)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내면심리!

22. (가)의 [이팔조 조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관찰자 역할. 1번선지 끝

정답. 인물의 성격.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서술 방식

발췌독 괜찮아요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 인물의 성격. 공간의 특징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갈등 인? (가)에는 갈등 없는데!

정답!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뎌내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장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숨겨진 주제. 의도.

형제간의 성격 차이. 갈등 암시.

영호 - 대범, 범죠포도 거리낌 없음

철호 - 성실. 도덕 5번 선지 정답!

우리의 시간, 판단력, 모든 부분에서 힘들게 만든 26번입니다.

출제 의도와 설계 파악이 안 되면 어마 어마한 시간을 소요하며, 결국 오답으로 이끌죠.

뻔한 보기 서술.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의도는? 설계는?

###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 소설 천변풍경

S1. 이쁜이 엄마 + 이쁜이 : 딸 시집장면  
시대적 배경 고려. 출가와인 시절.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 천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S2. 신전집 몰락. 이사 장면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슬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퐁!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 희곡/시나리오 오발탄

S68. 철호. 배경 산비탈. 철호 두벅 두벅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S69. 철호. 회상. 6.25. 피난민 수용소. 아내 모습.

S70. 철호. 배경 산비탈. 시가지와 거리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vs 영호와 철호의 성격 차이

S71. 영호. 배경 산비탈 길. 운전기사가 운전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S72. 영호가 철호의 집으로. 갈등 암시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성실 도덕	영호 부정	철호 기준 도덕으로 영호를 나무람 영호는 철호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는 거지꼴 못면함
영호	기회주의 성공만	철호 인정 자기 합리	

역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5. 철호 집 밖 공간. 명숙이. 영호 철호 그대로 싸움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S72. 영호가 철호의 집으로. 갈등 암시**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 천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습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통!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억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 천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서술자]에 의한 인물들의 감정 서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억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 천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억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습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통!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75와 유사하지만,

**S75는 같은 시간대! 전혀 다른 정답!**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전개방식의 특이한 부분이**

**주제 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을 못 잡으면 쉽지 않게 출제했습니다!**

